

▶ 교육안내메뉴에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교육종류별 신청기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보수교육대상자 확인기능과 협회 교육수료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신설하였다.

▶ 또한, 면허시험관련 사이버강좌 뿐만 아니라 종사자교육(과기부 승인후 운영 예정)에 대한 사이버강좌도 개발하였으며, 강좌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마련하여 구성하였다.

▶ 아울러, 면허시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인 경력사항, 시험일정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FAQ 메뉴

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면허시험 관련자료도 지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 앞으로 법령검색, 신규 사이버컨텐츠 및 연구관리메뉴 등은 향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동위원소교육연구원은 국내 방사선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사용자의 편리한 교육수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동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많은 방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혁신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종합계획 추진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원자력 정책방향을 수립해 추진한다.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총괄·종합·책임있는 안전규제, 혁신·선도적인 안전규제, 국가 방사선안전관리 체제 강화, 국민신뢰 확보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 6개 부문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총괄·종합·책임 있는 안전규제를 위해 5년 단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안전정책성명'의 중장기 실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가늠하는 안전요건을 설정·제도화하고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 또는 폐로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장기가동 원전의 후속 조치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원전 1·2차 계통의 안전규제 통합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산자부와 과기부가 분담하던

각 원전의 안전규제업무를 과기부로 통합하고 품질보증 체계를 도입해 2차 측에 기인한 안전성 저해요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원자력 안전규제정책들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사건별로 원인 대책을 집중 추적·확인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추적관리제'를 도입하고,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활용해 'e-안전검사' 체제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위험도 기반검사를 시범 적용해 기존 검사방법의 보완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선진규제제도인 위험도정보 규제제도 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국가 방사선안전관리 체제 강화다.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제도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제도를 연계해 사업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 규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GPS를 이용한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을 완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네번째는 방사능 방재 및 對테러 대응체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월성과 울진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각각 건설·운영토록 추진하여 평상시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장소로, 비상시에는 비상 지휘센터로 활용한다. 또 전국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현재의 15개 기관에서 20개로 확충하고 핵종별 탐지가 가능한 첨단 검출장비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 신뢰확보와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포럼」,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원자력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사선 실증체험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자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국

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주관하는 「원자력안전협약 이행현황 국가보고서 검토회의」에 부의장국으로 참여해 원자력안전규제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김용환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올해는 원자력이용과 안전규제행정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을 예정 이다”면서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한 안전규제 정책을 외국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cience Times, 2005. 2.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5·6대 원장이·취임식」 개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월 25일(금) 오후 4시 원내 강당에서 제5대 은영수 원장의 이임식과 앞으로 3년 동안 기관을 경영하게 될 제6대 신원기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신원기(辛元基, 57세) 원장은 서울대학교 원자 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원장은 '78년도에 원자력연구소에 입소한 이후 줄곧 원자력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다가 '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창립과 함께 검사총괄실장, 안전심사부장, 안전평가부장, 안전규제부장, 기획부장, 전문위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그 전문성과 지도력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온 바 있다.

신원기 신임 원장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규제에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와 국민과 지역주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하여 이들을 만족시키는 규제를 하며, 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고도의 윤리성을 추구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원자력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 것이며, 그리고 직원들이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취임사를 했다.



대학방사선안전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대학방사선안전관리자협의회(회장 정국헌)는 1월 27일(목)~28일(금) 양일간 전북대학교에서 국·공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 20여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윤길현실장 외 2인)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대학방사선안전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 안건으로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대학방사선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원자력직공무원 정원의 확보방안 ▲대학방사선안전관리 메뉴얼작성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 논의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 발전방향(윤길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물질규제1실) ▲서울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실태조사(최경순,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Radiation/Isotope Technology in Agriculture & Life Science(송성준, 제주대학교 방사선 응용과학연구소)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회장은 이번총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며 향후 대학방사선안전관리자협의회가 대학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촉진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사 동정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유전자 포털사이트 오픈

방사선의학과 관련된 유전자원 정보를 모아 맞춤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http://www.kiramsdb.re.kr>)가 개설됐다.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2월 3일(목) 방사선의학 관련 유전자원 정보를 집대성하여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맞춤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사선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방사선유전자와 관련된 연구 수행시 기존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들을 전전하며 활용하여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을 개선, 한 군데에서 단시간 내에 대부분의 학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중 '방사

선유전자원 통합네트워크 개발' 과제로 (주)이즈텍과 공동으로 지난 3년간 진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원자력의학원은 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www.kiramsdb.re.kr>)를 구축, 방사선과 관련된 유전체, 단백질체, DNA칩 분석 및 다형성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정리, 통합시켜 의학정보검색 부문에 있어 최초로 원스톱 개념을 실현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서자료 분석에 있어서 인공지능 검색엔진을 탑재한 것인데, 이는 키워드를 이용한 기존 방식의 문서 검색시, 관련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서들이 전부 다 추출되는 것과는 달리, 문장안에서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가 인식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